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 유형화 연구: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영향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이명희¹ | 김재철^{1*}

¹ 한남대학교

* 교신저자: 김재철
(jckim@hnu.kr)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유형화하고, 각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아동부가조사 10차(2015년, 초등 4~6학년 471명), 13차(2018년), 16차(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형(GMM)과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행복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개인별 변화 궤적은 고수준 출발 급감형(15.4%), 고등기 급감형(14.2%), 중상 수준 출발 점진적 하락형(32.8%), 고수준 출발 점진적 상승형(25.7%), 고등기 회복형(11.9%)의 다섯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발달적으로 가장 적응적인 '고수준 출발 점진적 상승형'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영향 요인을 탐색한 결과, 초기 아동기(초등 시기)의 낮은 자아존중감, 자살 생각,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위험 궤적 진입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모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감이 이질적인 궤적을 띠는 실증하고, 위험군 조기 선별과 예방 중심의 맞춤형 개입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 용어: 청소년, 전반적 행복감, 잠재계층, 성장혼합모형, 변화궤적 탐색적 영향요인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이고 있으며, 입시 경쟁과 물질주의적 가치관, 불안정한 사회 환경 속에서 심리적 불안과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행복감이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장기적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행복감의 이질적인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특히 발달적으로 가장 적응적인 긍정적 궤적(상승형)에서 이탈하여 위험 궤적으로 빠지게 만드는 초기 아동기의 핵심 위험 요인을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청소년의 행복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변화 양상은 다섯 가지 유형(고수준 출발 급감형, 고등기 급감형, 중상수준 출발 점진적 하락형, 고수준 출발 점진적 상승형, 고등기 회복형)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고수준 출발 점진적 상승형을 기준으로 영향을 검증한 결과, 초기 아동기(초등학교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낮은 자아존중감, 자살 생각이 위험 궤적 진입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으로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부모 요인의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초기 아동기의 외상(학교폭력)과 내적 고통(자살 생각)이 상급학교 진학 시점의 행복감 급감으로 직결됨이 확인되었으므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등과 연계하여 학교급 전환기를 겨냥한 촘촘한 조기 선별 및 예방 중심의 맞춤형 개입 정책이 시급하다. 학술적으로는 행복감의 비선형적 변화와 동적 요인을 추적할 수 있는 세분화된 장기 패널 자료 확보가 요구되며, 극적인 궤적 변화를 그리는 '고등기 회복형' 및 '고수준 출발 급감형' 집단을 중심으로 이들의 심층적인 극복 기제와 내면적 경험을 파악하는 질적 사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가 주관한 제18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 수상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투 고 일: 2025. 10. 30.
- 수 정 일: 2026. 02. 28.
- 게재확정일: 2026. 03. 19.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은 우려할 만한 상태이다. 한국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염유식, 성기호,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79.5점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다.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외적 성취가 중시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한국 청소년들은 끊임없는 입시 경쟁과 교육 문화의 압박에 노출되어 있으며(이기범, 2009), 이는 심각한 학업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여 정서적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유병인, 2021; 채인석, 장효열, 2021).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Erikson, 1968). 이 시기의 전반적 행복감은 학업과 진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부정적 정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심리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구재선, 서은국, 2012; Diener, 2000). 이처럼 행복감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 적응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구재선, 서은국, 2011), 청소년의 행복감이 성장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종단적 이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행복감은 단일 시점에서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발달적 연속선상에서 점진적 또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동태적인 심리 특성이다(Lyubomirsky, 2001). 그러나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특정 학교급에 국한하여 단일 시점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거나(조은정, 2014), 단기적인 변화만을 살펴보는 데 그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횡단적 접근으로는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행복감의 역동적인 변화와 개인 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온전히 포착하기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전 학령기는 학업 부담이 급증하고 또래 관계가 재편되는 중대한 ‘학교급 전환기(School Transition)’를 포함한다(최미원, 이재신, 2018). 이 시기들을 단절 없이 하나의 연속적인 궤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느 발달 단계에서 행복감의 급격한 하락이나 회복이 발생하는지 그 구조적 변화 양상을 추적하기 위해 필수적이다(김시현, 2022; 김형석 외, 2022).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장기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Overall Happiness)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때 전반적 행복감은 청소년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주관적 인식의 총체로서 접근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변수 중심 접근의 한계를 넘어 개인 중심 접근 방식인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을 적용하여, 행복감 궤적 내에 존재하는 잠재적 이질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집단을 유형화할 것이다. (Muthén & Muthén, 2000), 나아가 각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선천적이거나 고정된 인구사회학적 환경보다는, 정책적 개입과 교육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 자원(이미영, 2020; 이하은, 박영순, 2024), 부모의 양육 및 감독(관다영, 박정윤, 2024; 이주연, 한세영, 2021), 그리고 또래애착과 학교 환경 요인(최인경, 최진아, 2021; 정혜윤, 황일원, 2021)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발달 단계별 정서적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적 개입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의 개인별 변화궤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의 개인별 변화궤적은 몇 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는가?
- 연구문제 3. 전반적 행복감의 궤적 유형(잠재계층)을 예측하는 개인, 부모, 학교환경 요인의 탐색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발달적 전환기와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의 변화 궤적

행복감은 인간이 일상적 경험을 통해 느끼는 긍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을 포함하는 주관적 평가로,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Galambos et al., 2015; Yang et al., 2020). Diener(1984)는 행복감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으로 설명하며, 이를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인지적으로 평가하고 정서적으로 긍정적·부정적 반응을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서은국(2015)은 행복을 단순한 일시적 기분이 아닌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과 긍정정서의 지속적 경험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전반적 행복감(Overall Happiness)’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 전체 영역에 걸쳐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만족감의 총체를 의미한다. 행복을 측정함에 있어 청소년기는 객관적인 환경 지표나 타인의 평가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 즉 ‘주관적 행복감’이 핵심적인 지표로 작용한다(Lyubomirsky & Lepper,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을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인식의 총체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형태인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측정 도구로 활용하였다.

청소년기의 행복감은 단일 시점에서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아동기부터 청소년 후기까지 발달적 연속선상에서 변화하는 동태적인 심리적 특성이다(Lyubomirsky, 2001).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시기는 자율성 확대, 학업 부담, 또래 관계의 재편 등 환경적 요인이 급격히 변하는 중요한 ‘발달적 전환기’이다(최미원, 이재신, 2018; 최인경, 최진아, 2021). 이러한 과도기적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은 정서적 불안과 혼란을 겪기 쉬우며(Erikson, 1968), 이에 따라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어 왔다(김윤희, 김현숙, 2016; 박병선, 2019; Shek, 2005).

그러나 모든 청소년이 동일한 하락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전환기의 환경적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개인별 변화 양상은 뚜렷한 이질성을 지닌다(김시현, 2022; Lyubomirsky,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은 단일 시점에서의 특성을 확인하거나 특정 시기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그쳐, 전 학령기를 포괄하는 연속적인 궤적과 그 이질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김형석 외, 2022; Muthén & Muthén, 2000).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선형적 변화와 개인차를 동시에 모델링할 수 있는 성장혼합모형(GMM)을 적용하여, 행복감의 구체적인 변화 유형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김연, 2023; Nylund et al., 2007).

2.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반한 행복감 변화의 탐색적 예측 요인

발달적 전환기를 겪는 청소년의 행복감 궤적이 어떠한 방향으로 형성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 요인이 아닌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Bronfenbrenner(1986)의 생태체계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에 따르면, 인간의 발달은 개인과 그를 둘러싼 여러 환경 층위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발달 중인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미시체계(가족, 학교, 또래 등)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개인 내적 자원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미시체계(Microsystem; 또래, 부모, 학교)와 환경적 변화가 발생하는 시간체계(Chronosystem; 학교급 전환기에 따른 종단적 변화)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의 궤적 유형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을 개인 내적 심리 자원과 외부의 환경적 체계로 범주화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가. 개인 내적 요인: 심리적 자원 및 정서 조절

개인 내 심리적 요인은 행복감의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경험을 결정하는 핵심 자원이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로서 긍정 정서를 향상시켜 행복감을 높이는 강력한 보호 요인이다(Dong & Chen, 2021; 이하은, 박영순, 2024). 반면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등은 삶의 만족과 정서적 안녕을 저하시켜 행복감 형성을 저해한다(Cheng & Furnham, 2003). 또한 주의집중 능력은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고 목표 지향적 행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자기조절 자원으로, 이 능력이 뛰어날수록 긍정적 경험을 축적하여 높은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다(Gross & Thompson,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내적 자원의 결핍(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과 강점(자아존중감, 주의집중)이 행복감의 급격한 하락이나 상승 궤적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유병인, 2021; Reynolds, 1988).

나. 미시체계 요인: 부모 양육 및 학교·또래 환경

청소년을 둘러싼 가장 근접한 미시체계인 가족과 학교는 정서적 안정의 주요 기반이다. 부모의 관심과 일관된 지지, 긍정적인 지도감독은 자녀의 자기결정성과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반면(관다영, 박정윤, 2024; 이주연, 한세영, 2021), 학대와 같은 부정적 양육 태도는 자율성을 저하시켜 행복감을 위협한다(김진, 하문선, 2020; 이미영, 2020).

아울러 학령기가 진행될수록 생활의 중심축이 이동함에 따라 심리사회적 학교환경과 또래 관계의 질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박현주, 2022). 학교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학업에 대한 낮은 스트레스, 높은 학교 유대감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을 제공한다(최인경, 최진아, 2021). 특히 또래애착은 정서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행복감을 지탱하는 주요 요인인 반면(정재은, 이해원, 2024; 최정현, 2025), 학교폭력이나 또래 갈등은 심각한 정서적 위기를 초래한다(황매향 외, 2016).

3. 연구 문제 도출을 위한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은 발달 단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그 궤적은 개인 내 심리적 요인과 생태체계적 환경 요인(부모, 학교, 또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횡단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학령기를 포괄하는 종단적 접근을 통해 이질적인 행복감 변화 궤적(잠재계층)을 유형화하며,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반하여 도출된 다차원적 변인들이 각 궤적 유형에 속할 확률을 어떻게 탐색적으로 예측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문제는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기별, 맞춤형 정책 설계의 실증적 근거가 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계층의 규모 및 생활 실태 변화를 동태적

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수집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데이터 중 아동부가조사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다른 시점의 아동 코호트와 비교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신규표본으로 구성된 10차년도, 13차년도, 16차년도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10차년도(2015년) 자료는 패널조사 가구원 중 '2015년 3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4,5,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47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13차년도(2018년), 16차년도(2021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0차년도 조사부터 13차, 16차 조사 중 응답이 한 번이라도 된 471명의 세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인 영향요인 관련 자료는 10차 년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 측정 도구

가. 전반적 행복감 척도(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전반적 행복감은 한국복지패널이 서울아동패널(2011)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의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된 '주관적 행복감' 6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은 1,2,3,4,5로 되어 있는 변수 값을 0,1,2,3,4로 코딩 변경하고, 마지막 6번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본 연구에서 정의한 전반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세부 문항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전반적 행복감 측정 문항 및 시점별 신뢰도

종속변인	측정 문항	Cronbach α		
		10차 (2015)	13차 (2018)	16차 (2021)
주관적 행복감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739	.781	.834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3. 나는 삶에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린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주: 본 척도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한 '주관적 행복감' 문항을 활용하였음.

출처: "한국복지패널 사용자지침서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25, p. 99.

나. 영향요인 척도(독립변수)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척도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10차년도(2015년) 아동부가조사 내용을 사용하였다. 활용한 척도들의 측정 대표 문항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영향요인별 측정문항 및 신뢰도

하위요인	측정 대표 문항	Cronbach α
개인	자아존중감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있는 사람이다. 외 12문항	.848

하위요인	측정 대표 문항	Cronbach α	
우울, 불안	외롭다고 불평한다. 외 13문항	.851	
주의집중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외 10문항	.856	
위축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외 8문항	.808	
공격성	말다툼을 자주 한다. 외 18문항	.829	
자살생각	자살을 할까 생각했다. 외 5문항	.909	
부모	교육참여	부모님과 나는 학교 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대화한다. 외 3문항	.739
	지도감독	부모님은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계신다. 외 3문항	.850
	아동학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외 7문항	.692
사회 (학교) 환경	학업스트레스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 3문항	.783
	학교유대감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낸다. 외 5문항	.708
	심리사회적	학교생활이 즐겁다. 외 8문항	.766
	학교폭력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외 5문항	.722
	피해경험	5문항	
	학교성적	학교성적(전과목, 국어, 수학, 영어 평균)	.824
	친한 친구의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외 3문항	.756
	또래애착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외 3문항	.725

출처: “한국복지패널 사용자지침서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25, pp. 89-108.

1) 개인요인 척도

개인요인은 한국복지패널의 10차년도 아동부가조사 자료로, 그중 자아존중감 13문항, 우울 및 불안 문항 14문항, 주의집중 11문항, 위축 9문항, 공격성 19문항, 자살 생각 6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항상 그렇다(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중에서 평정하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위축, 공격성 척도는 ‘자주 그렇다(3점), 그런 편이다(2점), 전혀 아니다(1점)’까지 중에서 평정하는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분석을 위해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1, 2, 3, 4의 값을 0, 1, 2, 3으로,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1, 2, 3의 값을 0, 1, 2로 코딩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부정 문항의 경우 역코딩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나 주의집중의 경우에는 총점이 높을수록 주의집중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자살생각 척도는 ‘거의 매일(6점), 일주일 2-3번(5점), 일주일 1번(4점), 한달 2-3번(3점), 한달 1번(2점), 지난달 없다(1점), 전혀 없다(0점)’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변수 값을 그대로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평소 자살을 생각하는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부모요인 척도

부모요인은 한국복지패널의 10차년도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중 부모의 교육참여 4문항, 부모의 지도감독 4문항, 부모의 아동학대 8문항(신체적학대 1문항, 정서적학대 3문항, 방임 4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교육참여와 지도감독은 ‘항상 그렇다(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평정하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분석을 위해 1, 2, 3, 4의 변수 값을 0, 1, 2, 3으로 코딩 변경해 사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참여, 지도감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아동학대는 ‘일주일에 1-2번 정도(5점), 한달에 1-2번 정도(4점), 2-3개월에 1-2번 정도(3점), 1년에 1-2번 정도(2점), 전혀 없었다(1점)’중에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분석을 위해 1, 2, 3, 4, 5의 변수 값을 0, 1, 2, 3, 4로 코딩 변경해 사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3) 사회(학교)환경 요인 척도

사회(학교) 환경 요인은 한국복지패널의 10차년도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중 학업스트레스 4문항, 학교유대감 6문항,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9문항, 학교폭력 피해경험 6문항, 학교성적 4문항, 친한 친구의 또래 애착 4문항, 친구애착 4문항을 사용하였다.

먼저 학업스트레스, 학교유대감,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친구 애착, 친한 친구의 또래 애착척도는 ‘매우(항상) 그렇다(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중에서 평정하는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학교폭력피해경험은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피해경험을 ‘4번 이상(4점), 2-3번(3점), 1번(2점), 전혀 없다(1점)’ 중에서 평정하는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분석을 위해 1, 2, 3, 4의 변수 값을 0, 1, 2, 3으로 코딩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부정 문항의 경우는 역코딩 처리하였다.

학교성적은 전 과목 평균, 국어, 수학, 영어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아주 잘함(5점), 중간 이상(4점), 중간(3점), 중간 이하(2점), 아주 못함(1점)’ 중에서 평정하는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분석을 위해 1, 2, 3, 4, 5의 변수 값을 0, 1, 2, 3, 4로 코딩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및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여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을 적용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종단연구에 접목한 모형으로 개인의 변화궤적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성장모형이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하지 못한 반면, 성장혼합모형은 잠재계층별로 초기치와 변화함수 계수를 개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uthén & Muthén, 2000). 이를 통해 종단적으로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을 검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하여 행복감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아동부가조사 10차, 13차, 16차 자료를 바탕으로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변화함수 모형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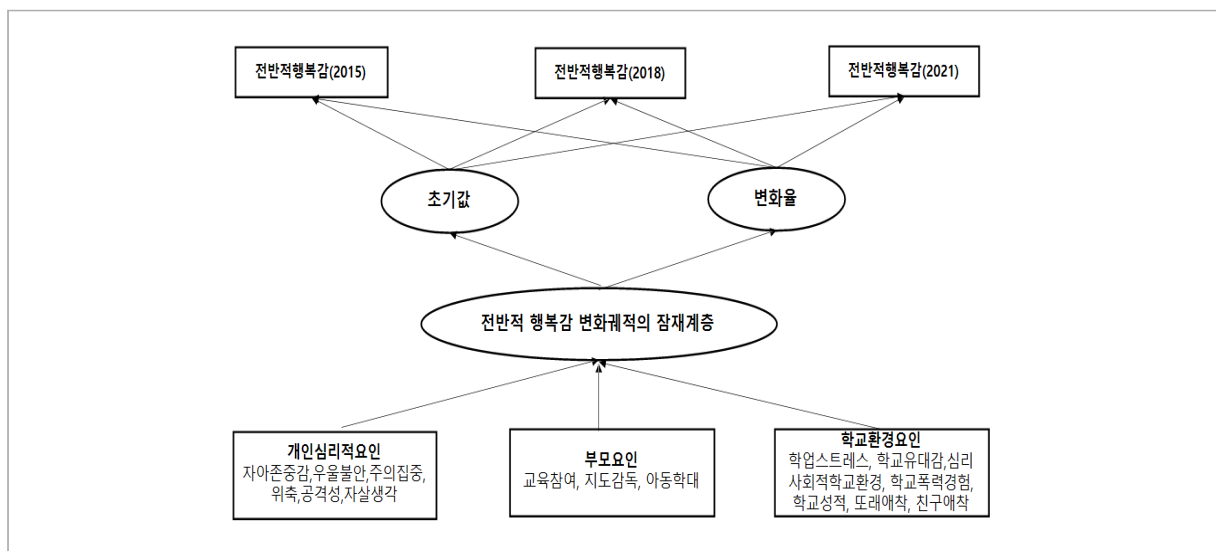
둘째, 도출된 변화함수를 바탕으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였다.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준거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Entropy)를 확인하였다. 정보준거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음을 의미하며(Wickrama et al., 2016), 엔트로피는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하는데 통상 .8 이상이면 양호한 분류로 간주한다(Muthén, 2004). 또한 모형 검증을 위해 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와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를 활용하였으며, p값이 유의할 경우 k-1개 모형보다 k개 모형이 우수함을 의미한다(Lo et al., 2001).

셋째, 분류된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부모, 학교 차원의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을 적용하였다(Vermunt, 2010). 성장혼합모형 분석 시 독립변인을 동시에 투입할 경우 변수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잠재계층 분류 자체가 왜곡될 수 있으나, 3단계 접근법은 분류 오류(classification error)를 통계적으로 고려하면서 영향 요인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한다(Asparouhov & Muthén, 2014). 특히 본 연구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변화 유도가 가능한 요인들의 탐색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모형의 통계적 간명성과

수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성별, 거주 지역 등 고정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분석 모형에서 제외하고 내적·관계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영향 요인이 집단 분류에 미치는 위험도를 명확히 대비하기 위해, 도출된 궤적 중 가장 이상적인 발달 양상을 보이는 집단을 기준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 정제 및 결측치 처리를 위해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였다. 잠재계층 도출을 위한 성장혼합모형 분석에는 Mplu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영향 요인 검증을 위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는 Jamovi 2.3을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IV. 연구 결과

1. 상관 분석

각 변수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세 시점에 측정된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는 서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시기는 서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점의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은 자아존중감, 부모교육참여, 부모지도감독, 심리사회적학교 환경, 학교성적, 학교유대감, 친구애착, 친한친구의 또래애착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불안, 주의집중, 위축, 공격성, 자살생각, 부모의 아동학대,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경험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중학교 시점에 측정된 전반적 행복감은 초등학교 때 측정된 요인들 중 자아존중감과만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시점에 측정된 전반적 행복감은 초등학교 때 측정된 요인과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이 없었다.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수 및 기술 통계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1																			
2	0.009	1																		
3	0.051	0.440***	1																	
4	0.598***	-0.093*	0.044	1																
5	-0.469***	0.073	-0.023	-0.435***	1															
6	-0.432***	0.056	-0.014	-0.378***	0.706***	1														
7	-0.499***	0.051	-0.029	-0.399***	0.718***	0.745***	1													
8	-0.333***	0.027	0.035	-0.313***	0.500***	0.652***	0.562***	1												
9	-0.275***	0.040	-0.028	-0.200***	0.445***	0.293***	0.386***	0.125**	1											
10	0.351***	0.056	0.041	0.282***	-0.155***	-0.168***	-0.194***	-0.174***	-0.122*	1										
11	0.329***	0.038	0.006	0.261***	-0.222***	-0.253***	-0.208***	-0.231***	-0.109*	0.519***	1									
12	-0.175***	0.011	0.040	-0.227***	0.320***	0.359***	0.335***	0.319***	0.097*	-0.061	-0.170***	1								
13	0.578***	-0.004	0.028	0.618***	-0.322***	-0.416***	-0.351***	-0.347***	-0.205***	0.308***	0.299***	-0.196***	1							
14	-0.430***	0.063	-0.000	-0.543***	0.431***	0.390***	0.333***	0.271***	0.176***	-0.122*	-0.143**	0.104*	-0.449***	1						
15	0.345***	-0.035	0.057	0.456***	-0.159***	-0.281***	-0.233***	-0.172***	-0.076	0.354***	0.289***	-0.152**	0.482***	-0.332***	1					
16	0.426***	0.017	0.024	0.439***	-0.125	-0.190***	-0.148**	-0.195***	-0.053	0.160***	0.087	-0.185***	0.490***	-0.364***	0.198***	1				
17	0.295***	0.002	0.022	0.317***	-0.027	-0.015	-0.069	-0.045	0.005	0.298***	0.214***	0.035	0.286***	-0.202***	0.224***	0.258***	1			
18	-0.332***	-0.009	-0.032	-0.294***	0.503***	0.478***	0.456***	0.330***	0.257***	-0.099*	-0.112*	0.336***	-0.249***	0.223***	-0.128**	-0.180***	-0.030	1		
19	0.398***	-0.077	0.055	0.427***	-0.166***	-0.182***	-0.201***	-0.111*	-0.134**	0.207***	0.205***	-0.055	0.396***	-0.336***	0.202***	0.293***	0.492***	-0.172***	1	
평균	3.197	2.806	2.332	2.203	0.255	0.244	0.210	0.133	0.086	1.698	2.196	0.134	2.421	1.682	3.852	2.338	3.260	0.163	3.414	
표준 편차	0.675	1.063	1.139	0.425	0.290	0.317	0.291	0.182	0.417	0.651	0.689	0.288	0.363	0.608	0.792	0.437	0.624	0.354	0.471	
왜도	-899	-870	-305	-343	2.275	1.853	2.378	2.094	6.669	-143	-738	3.614	-872	.717	-440	-387	-731	3.153	-619	
첨도	1.051	-315	-1.260	.337	6.902	3.759	7.246	5.045	51.695	-028	.284	16.666	2.737	-170	.026	-152	.417	11.763	.899	

주: 1=전반적행복감1, 2=전반적행복감2, 3=전반적행복감3, 4=자아존중감, 5=우울불안, 6=주의집중, 7=위축, 8=공격성, 9=자살생각, 10=부모교육참여, 11=부모지도감독, 12=아동학대, 13=심리사회적학
교환경, 14=학업스트레스, 15=학교성적, 16=학교유대감, 17=친구애착, 18=학폭경험, 19=친한친구의 또래애착

* $p < .05$, ** $p < .01$, *** $p < .001$.

2. 전반적 행복감의 개인별 변화궤적

먼저, 전체 집단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에 적합한 함수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추가하지 않은 무조건 잠재 성장모형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무변화 모형, 1차 함수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Hu & Bentler(1999)는 TLI, CFI가 .95 이상, RMSEA는 .06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보았으며, Browne & Cudeck(1992)는 RMSEA의 값이 .05이하이면 매우 좋은 적합도, .08까지는 좋은 적합도, .08~.10 사이는 보통의 적합도라고 하였다. <표 4>를 보면 선형함수가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 형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형함수 모형을 선택하였다.

초등 고학년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반적 행복감의 개인별 변화의 평균은 3.193점이고, 기울기는 -.423($p < .001$)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차수마다 .423만큼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율 요인의 분산은 .228($p < .001$)로 개인별 변화의 개인 간 차이는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깃값 요인과 기울기 요인 간의 공분산은 .011($p = .27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개인의 초기 전반적 행복감 수준과 변화율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개인의 출발 수준과 변화의 방향성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변화함수 모형별 적합도 지수

	초깃값	기울기	기울기 분산	χ^2	df	p	CFI	TLI	RMSEA
무변화	2.942***			266.138	4	.000	.000	.000	.383
선형변화	3.193***	-.423***	.228***	0.147	1	.000	1.000	1.000	0.000
	권장기준						>.9	>.9	<.08

* $p < .05$, ** $p < .01$, *** $p < .001$.

3. 전반적 행복감의 잠재계층 분석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수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계층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정보 지수, 분류의 질을 비교해보았다. 정보지수의 경우, 잠재계층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aBIC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5계층 모형에서 AIC(3180.9)와 A-BIC(3202.3)가 가장 낮아 모형 적합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MR과 BLRT의 유의확률이 2-5계층 모형 모두에서 .001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계층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 모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Entropy 지표는 5계층 모형에서 다소 낮은 수치(.818)를 보이기는 했으나, 일반적으로 .80 이상이면 양호한 분류 품질로 간주된다(Nylund et al., 2007). 마지막으로, 5계층 모형의 최소계층 비율은 10.7%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5%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Muthén & Muthé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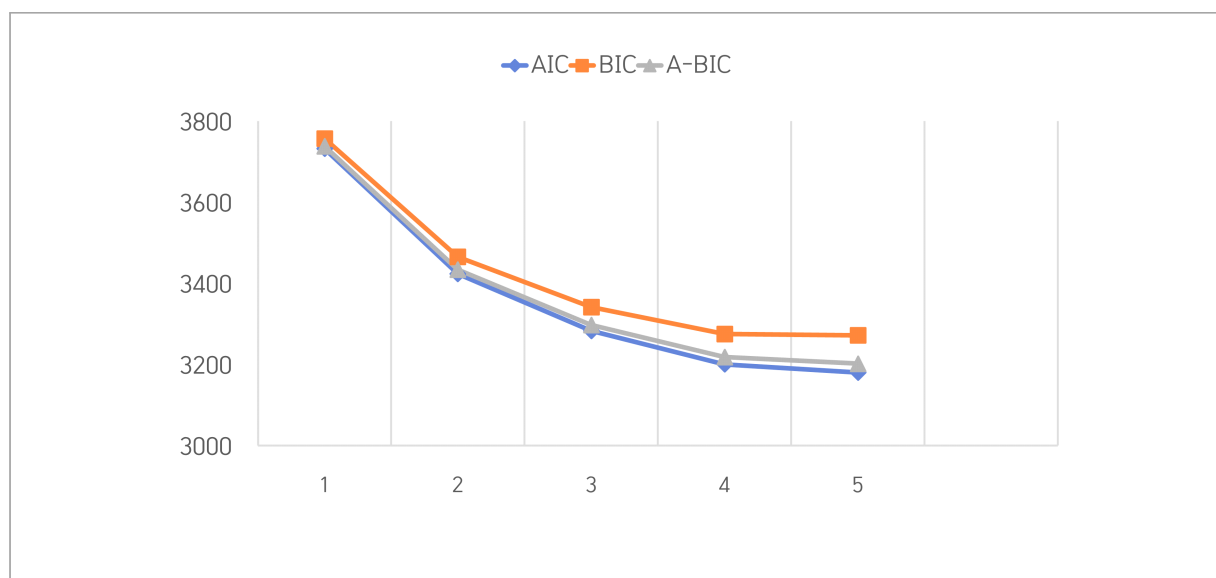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때,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잠재계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5.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정보지수 및 모형 비교 검증

계층수	AIC	BIC	A-BIC	Entropy	LMR	BLRT	최소계층비율(%)
1	3732.5	3757.4	3738.3	-	-	-	-
2	3424.0	3465.5	3433.8	.951	304.0***	-1860.2***	16.5
3	3283.7	3341.9	3297.4	.926	142.5***	-1702.0***	15.6
4	3200.9	3275.6	3218.4	.868	87.4***	-1627.9***	13.9
5	3180.9	3272.2	3202.3	.818	68.3***	-1582.4***	11.9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잠재계층 수에 AIC, BIC 적합도 지수



4. 전반적 행복감 변화양상의 잠재계층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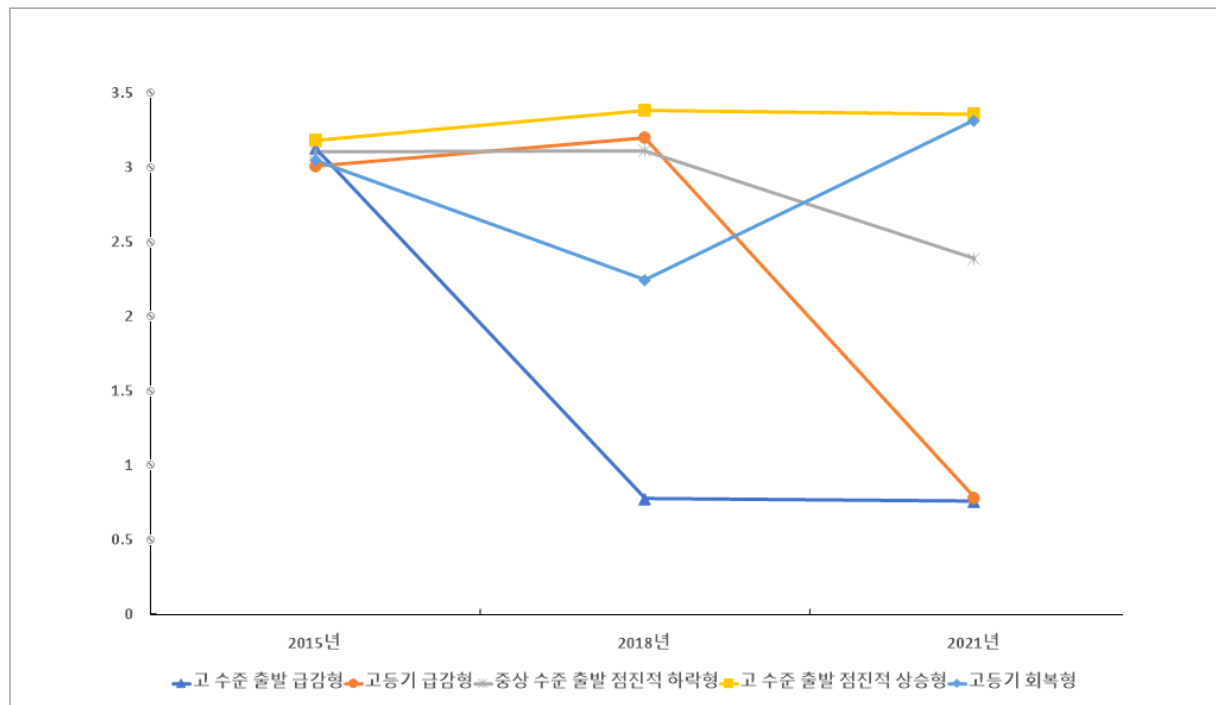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5개의 잠재계층의 잠재성장요인은 다음과 같다. 전체 15.4%를 차지하는 첫 번째 집단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높은 행복감을 보이다가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 고수준 출발 급감형으로 명명하였고, 두 번째 집단은 중등기까지 유지되던 높은 행복감이 고등기에서 급락하는 형태를 보여 고등기 급감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13.9%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의 33.8%를 차지하였으며, 초등기 이후 점차 완만하게 감소하지만 전반적으로 중상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형태를 보여 중상 수준 출발 점진적 하락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의 26.3%를 차지한 네 번째 집단은 전 시기 동안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고수준 출발 점진적 상승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의 10.7%를 차지한 마지막 집단은 중학교 시기에 일시적으로 행복감이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시기에 다시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 고등기 회복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6. 잠재계층별 분류비율과 모수 추정치

잠재계층	사례비율(%)	잠재성장요인	추정된 평균
CLASS 1 (고수준 출발 급감형)	15.4	초기치 일차변화율	3.216*** -1.218***
CLASS 2 (고등기 급감형)	14.2	초기치 일차변화율	3.092*** -1.143***
CLASS 3 (중상 수준 출발 점진적 하락형)	32.8	초기치 일차변화율	3.195*** -0.369***
CLASS 4 (고수준 출발 점진적 상승형)	25.7	초기치 일차변화율	3.275*** +0.090***
CLASS 5 (고등기 회복형)	11.9	초기치 일차변화율	3.132*** +0.14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3차년도에 걸친 전반적 행복감의 잠재계층별 평균 변화



5. 전반적 행복감 잠재계층 영향 요인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결정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조건 모형을 분석하였다. 가장 적응적인 발달 궤적을 보이는 '고수준 출발 점진적 상승형'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여 초기(초등학교 고학년 시점)의 독립변수들이 각 위험 궤적 집단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고수준 출발 점진적 상승형 집단에 비해 고수준 출발 급감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은 학교폭력 경험이었다. 학교폭력 경험의 회귀계수는 1.267($p < .05$)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상승 궤적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고등학교 진학 시 행복감이 급락하는 '고수준 출발 급감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약 3.55배($\exp(B)=3.550$)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기 급감형 집단의 경우, 고수준 출발 점진적 상승형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초기(초등학교 시점)에 측정된 개인, 부모, 학교 환경 변인 중 유의미한 예측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고등기 급감형 집단이 겪는 행복감의 급격한 하락이 초기 아동기인 10차 년도의 특성보다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후 새롭게 직면하게 되는 학업 부담이나 환경적 스트레스 등 후속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중상 수준 출발 점진적 하락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다. 자아존중감의 회귀계수는 $-0.934(p<.05)$ 로, 자아존중감이 1단위 증가할 때 점진적 하락형 집단에 속할 확률은 약 61% 감소($\exp(B)=0.393$)하였다. 즉, 초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이상적인 상승형 궤적에서 이탈하여 학령기 전반에 걸쳐 행복감이 서서히 하락하는 집단에 속할 위험이 커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고등기 회복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은 자살 생각과 학교폭력 경험이었다. 초등학교 시기에 자살 생각을 많이 할수록 고등기 회복형에 속할 확률이 약 4.54배($\exp(B)=4.537$),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높을수록 약 3.97배($\exp(B)=3.967$)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심각한 내적 고통(자살 생각)이나 외적 외상(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중학교 진학 시 환경 변화에 취약하여 행복감이 크게 출렁이며 하락하는 위기를 겪게 됨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들이 중학교 시기의 부적응과 위기를 거쳐 고등학교 시기에 진입하며 행복감의 '회복'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 해당 기제가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새로운 전환기가 가해 또래집단과의 물리적 분리나 새로운 교우관계 형성 등 환경적 쇄신의 기회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 후기로 접어들며 자아정체성과 인지·정서적 조절 능력이 성숙해짐에 따라, 초기 외상 경험을 완충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점진적으로 발현되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어떠한 내적·외적 자원을 바탕으로 회복 궤적에 진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적 기제는 본 연구의 양적 분석만으로는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질적 사례 연구나 회복탄력성 변인을 포함한 추가적인 중단 분석을 통해 그 역동적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청소년이 가장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행복감 궤적(고수준 출발 점진적 상승형)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위기 궤적으로 이탈하게 만드는 초기 아동기의 핵심 위험 요인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 '낮은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살 생각이 확인되었다'.

표 7. 전반적 행복감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기준집단		고수준 출발 점진적 상승형											
비교집단	고수준 출발 급감형			고등기 급감형			중상 수준 출발 점진적 하락형			고등기 회복형			
영향요인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개인 심리 요인	자아존중감	0.27332	0.577	1.31432	-0.72212	0.593	0.48572	-0.93406	0.472	0.39296*	-0.04012	0.671	0.96068
	우울 불안	-1.03361	1.080	0.35572	-0.36548	0.976	0.69387	-0.13912	0.806	0.87012	-1.50259	1.117	0.22255
	주의집중	-0.51369	0.993	0.59829	1.31254	0.927	3.715559	-0.81774	0.798	0.44143	1.10930	1.014	3.03225
	위축	-0.09394	0.962	0.91033	-0.23990	0.950	0.78671	-0.18575	0.755	0.83048	-0.44436	1.044	0.64123
	공격성	0.34527	1.337	1.41237	-0.65110	1.305	0.52147	1.74474	1.025	5.72439	-0.02116	1.439	0.97906
	자살생각	-0.56266	1.313	0.56969	0.56027	0.775	1.75114	0.40078	0.683	1.49299	1.51227	0.718	4.53702*
부모 요인	교육참여	-0.32816	0.298	-1.09993	0.43279	0.327	1.54155	-0.12099	0.248	0.88605	0.53470	0.359	1.70693
	지도감독	0.03212	0.276	0.11633	-0.34597	0.295	0.70754	-0.16222	0.232	0.85026	-0.56447	0.328	0.56866
	아동학대	-0.54375	0.616	0.58057	-0.96418	0.659	0.38129	-0.75908	0.492	0.46810	-1.07024	0.746	0.34293
학교 환경 요인	심리사회적학교환경	-0.68210	0.646	0.50556	0.89654	0.674	2.45110	0.58967	0.537	1.80339	-0.49115	0.738	0.61193
	학업스트레스	-0.18628	0.353	0.83004	-0.02723	0.351	0.97314	0.05180	0.277	1.05317	0.43197	0.392	1.54028
	학교성적	-0.00648	0.242	0.99354	-0.10905	0.254	0.89668	-0.09495	0.200	0.90942	0.43417	0.295	1.54368
	학교유대감	0.00204	0.443	1.00204	-0.19271	0.469	0.82472	0.10002	0.370	1.10519	0.17707	0.531	1.19372
	친구애착	-0.00626	0.304	0.99376	0.31944	0.331	1.37636	0.35035	0.261	1.41956	0.53549	0.397	1.70829
	학폭경험	1.26702	0.588	3.55025*	0.46680	0.608	1.59489	0.80861	0.517	2.24479	1.37813	0.641	3.96746*
	친구의도래애착	0.21976	0.445	1.24578	-0.76076	0.458	0.46731	0.18510	0.363	1.20333	0.18748	0.536	1.20621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 궤적을 종단적으로 살펴 보고, 그 이질적인 변화 양상에 따라 잠재집단을 유형화한 후, 각 유형에 탐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 부모, 학교 및 또래 환경 요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KOWEP) 아동부가조사 10차년도(2015년), 13차년도(2018년), 16차년도(2021년) 471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형 및 분류 오류를 고려한 3RSTEP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주의집중, 위축, 공격성, 자살생각의 6개 요인을 사용하였고, 부모 요인으로는 부모의 교육참여, 지도감독, 아동학대 3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학교환경요인으로는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학업스트레스, 학교성적, 학교유대감, 친구애착, 학교폭력 피해경험, 친한 친구의 또래애착 7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은 선형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행복감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점 감소한다는 선행연구(김은희, 김현숙, 2016; 박병선, 2019; 정혜숙, 김영희, 2014; 조은정, 2014; 최미원, 이재신, 2018; Shek & Liu, 2014)를 지지한다.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불안정성, 학업 부담 증가, 대인관계의 복잡성 등과 같은 발달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인지적으로 발달할수록 외부 피드백, 사회적 비교 등에 근거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모든 청소년이 동일한 속도로 변화하지 않으며, 개인 간 이질적인 변화 양상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평균 변화 경향만을 기준으로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은 정서적 위험군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둘째,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궤적에 대한 성장혼합모형 분석 결과 다섯 개의 잠재집단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섯 개의 집단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높은 행복감을 보이다가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고수준 출발 급감형 집단 15.4%, 중등기까지 유지되던 높은 행복감이 고등기에서 급락하는 형태를 보이는 고등기 급감형 집단 14.2%, 초등기 이후 점차 완만하게 감소하지만 전반적으로 중상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중상 수준 출발 점진적 하락형 집단 32.8%, 전 시기 동안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고수준 출발 점진적 상승형 집단 25.7%, 중학교 시기에 일시적으로 행복감이 감소하나 고등학교 시기에 다시 상승하는 고등기 회복형 집단 11.9%로 분류되었다. 이 중 중상 수준 출발 점진적 하락형과 고수준 출발 점진적 상승형 집단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은 다수의 청소년이 일정 수준 이상의 행복감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고수준 출발 급감형과 고등기 급감형, 고등기 회복형 등 변화의 폭이 큰 집단의 존재는 특정 시기에 정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하고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고등기 회복형의 존재는 일시적 저하 이후 정서적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심리적 자원의 활성화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가 크다.

셋째, 가장 이상적인 행복감 궤적(고수준 출발 점진적 상승형)에서 이탈하여 위험 궤적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초기 시점(초등학교 고학년)의 핵심 예측 요인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 '낮은 자아존중감', '자살 생각'으로 나타났다. 우선,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폭력 피해를 크게 경험할수록 중학교 진학 시 행복감이 곤두박질치는 '고수준 출발 급감형'에 속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 이는 아동기 후기 또래 관계에서의 외상적 경험이 이후 상급 학교 진학 시 새로운 환경 적응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정적 위험 요인임을 증명한다. 또한, 초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서서히 행복감이 하락하는 '중상 수준 출발 점진적 하락형'에 속할 위험이 컸으며, 이는 개인의 긍정적 자아 평가가 학령기 전반의 심리적 방어막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넷째, 극심한 위기 이후 회복을 경험하는 '고등기 회복형'의 특성과, 초기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등기 급감

행의 특성은 발달 전환기 환경의 역동성을 시사한다. 앞서 둘째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적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고등기 회복형'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심각한 자살 생각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속해 있었다. 이들은 중학교 때 큰 위기를 겪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결과적으로 행복감을 회복해 낸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새로운 전환기가 가해 또래집단과의 물리적 분리 및 새로운 교우관계 형성 등 긍정적 환경 변화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고등기 급감형'의 경우 초기 아동기의 10차 년도 요인들로는 소속 확률이 유의하게 예측되지 않았다. 이는 이들의 급격한 행복감 하락이 과거에 누적된 초기 문제보다는, 고등학교 진학 이후 새롭게 가증되는 입시 경쟁이나 학업 스트레스 등 후속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 즉각적으로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부모 요인(교육참여, 지도감독, 아동학대)은 잠재계층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자율성이 커지고, 또래 관계나 학교 경험 등 외부 사회적 환경과 개인 내 심리 자원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는 발달적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이 발달 단계에 따라 이질적인 변화 경로를 보이며, 특히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는 잠재집단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의 촘촘한 정교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건강 형평성 및 예방 중심의 정책 수립과 관련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선별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초기 자아존중감 저하, 자살 생각, 학교폭력 피해 등을 겪는 고수준 출발 급감형-중상 수준 출발 점진적 하락형 등 취약집단은 학업 부담, 또래관계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정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돌봄 취약계층 아동에게 심리사회적 교육자원 접근성을 우선 보장하고, '전환기 위기 학생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교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예: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의 맞춤형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기 위험군 발굴과 지원 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소년 행복을 미래 전환적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출생아 감소로 인해 각 세대의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 시기 정서 안정성은 향후 노동력 지속성, 사회적 자본 형성,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밀접하다. '고수준 출발 급감형'이나 '고등기 급감형'에서 보듯 행복도 저하 시점을 정확히 포착하여 중학교-고등학교 과도기 집중 개입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생산가능인구의 정신건강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학교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등 부정적 학교환경 변인이 궤적을 붕괴시키는 주요 예측 요인으로 나타난 점은, 학교를 정신건강 1차 예방 및 외상 치유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8월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여 공공의료,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교사·상담 인력 확충, 정신건강 접근성 제고, 학업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료·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된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도 일시적 정서 저하에서 다시 상승하는 '고등기 회복형'의 존재는 내적 회복력(resilience)을 촉진하는 예방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사후 치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서조절, 자존감 강화, 또래 관계 개선, 학교 유대감 증진을 도모하는 '사회정서학습(SEL)' 프로그램을 발달단계별로 차별화하여 정규화해야 한다. 이는 질병 치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 중심의 접근으로 이동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

다섯째,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가장 이상적인 궤적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한 성장혼합모형(GMM)과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 분석은 청소년 집단 내 이질적 특성에 기초한 정밀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향후 국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요인 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개입 프로그램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 효과성·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3개 시점 종단자료(총 471명)를 분석하였다. 이는 잠재계층모형과 같은 복잡한 분석에 있어 이론적으로는 허용되는 수준이나, 집단 분류 후 각 잠재집단의 표본 수가 작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소수 집단(예: 고등기 회복형)의 추정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크고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여 잠재계층 간 추정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종단 자료가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3개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변화 양상을 선형적으로만 모델링할 수밖에 없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비선형적 변화나 특정 전환점(turning point)에서의 굴곡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측정 시점을 4회 이상으로 세분화한 다년간의 패널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변화 가능한 요인(심리, 부모, 학교)의 탐색적 영향력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따라, 성별이나 지역, 한부모 가정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환경 변수를 모형의 간명성과 수렴 안정성을 위해 통제(제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환경 요인을 구체적으로 대입하여 집단 간 궤적 차이를 다각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행복감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초기(초등학교 시점)에 측정된 변수에 국한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 요인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 요인(time-varying covariates)을 포함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 등을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의 영향력을 정밀하게 추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 패널 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유형이 겪는 내면적 경험이나 회복 과정의 구체적인 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등기 회복형'이나 '고수준 출발 급감형'과 같이 전환기에 극적인 변화를 겪는 집단에 대해, 향후 질적 사례 분석이나 심층 인터뷰를 병행한다면 이들이 어떠한 미시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보다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명희는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대전상지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외상후 성장, 행복, 애도 등이며, 현재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mail: rose8909032@naver.com)

김재철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세부전공: 측정·평가 및 연구 방법론)를 받았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남대학교 상담학과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구조방정식, 다층모형, 종단자료 분석 등이다.

(E-mail: jckim@hnu.kr)

참고문헌

- 관다영, 박정윤. (202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감독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8(4), 547-564.
-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구재선, 서은국. (2012). 행복은 4년 후 학업성취를 예측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35-50.
- 김시현. (2022). 초등학생의 행복감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9), 367-382.
- 김연. (2023).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행복감 변화궤적과 영향요인 탐색. *교육문화연구*, 29(1), 261-284.
- 김윤희, 김현숙. (2016).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성별 및 애착 관계의 영향. *상담학연구*, 17(3), 337-354.
- 김진, 하문선. (2020). 청소년기 부모학대 경험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 효과. *중등교육연구*, 68(1), 97-133.
- 김형석, 이정호, 홍혜영. (2022). 아동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궤적에 대한 잠재계층분류와 예측요인: 성장혼합모형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6(3), 79-103.
- 박병선. (2019).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 및 성별과 차이 분석. *인문사회21*, 10(1), 1121-1132.
- 박현주. (2022). 학교환경에 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 35(3), 143-151.
- 서은국. (2015). 행복의 기원: 우리는 왜 행복을 느끼는가. 21세기북스
- 염유식, 성기호. (2021).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 유병인. (2021).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 및 행복과의 구조적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6(4), 195-200.
- 이기범. (2009). 한국의 교육문화와 아동·청소년의 행복. *한국청소년연구*, 20(1), 365-392.
- 이미영. (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4, 115-135.
- 이주연, 한세영. (2021). 부모 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감독 및 청소년의 성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행복감. *한국생활과학회지*, 30(1), 63-77.
- 이하은, 박영순. (2024).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80, 101-120.
- 정재은, 이해원. (2024). 교사-아동 갈등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 *육아정책연구*, 18(1), 43-59.
- 정혜숙, 김영희. (2014). 아동이 지각한 행복 결정요인: 심리특성, 사회활동, 관계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21(7), 89-118.
- 정혜윤, 황일원. (2021).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행복감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3(2), 77-99.
- 조은정. (2014). 저소득층 초등학생·중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개인, 가족, 학교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2(1), 53-64.
- 채인석, 장효열. (2021).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자치행정학보*, 35(2), 257-275.
- 최미원, 이재신. (2018). 초·중학교 전환기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에 대한 종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8(14), 875-900.
- 최인경, 최진아. (2021).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25(3), 49-60.
- 최정현. (2025).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 부모의 성취압력,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 간의 관계. *디지털정책학회지*, 4(1), 85-95.
- 황매향, 최희철, 임효진. (2016). 청소년기의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3), 195-220.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742.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heng, H., & Furnham, A. (2003). Personality, self-esteem, and demographic predictors of happiness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6), 921-942.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ong, Y., & Chen, X. (2021). Self-concept clarity and happiness among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Adolescence, 91*, 104-116.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W. W. Norton & Company.
- Galambos, N. L., Howard, A. L., & Maggs, J. L. (2015). Rise and fall of depressive symptoms and academic stress in two samples of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8), 1492-1506.
- Gross, J. J., & Thompson, R. A. (2007). Emotion regulation: Conceptual foundations.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3-24). Guilford Press.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Lyubomirsky, S. (2001).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 *American Psychologist, 56*(3), 239-249.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Reynolds,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hek, D. T. L. (2005).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parent-child relational qualities in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Sex Roles, 53*(9-10), 635-646.
- Shek, D. T., & Liu, T. T. (2014). Life satisfaction in junio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Hong Kong: A 3-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7*(3), 757-779.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 Wickrama, K. A. S., Lee, T. K., O'Neal, C. W., & Lorenz, F. O. (2016). *Higher-order growth curves and mixture modeling with Mplus: A practical guide*. Routledge.
- Yang, Y., Park, J., & Kim, S. (2020). Adolescent happiness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Studies, 23*(5), 621-638.

A Study on the Typology of Changes in Adolescents' Overall Happiness: Focusing on an Exploration of Influencing Factors Using Growth Mixture Modeling

Lee, Myung Hee¹ | Kim, Jae Chul^{1*}

¹ Hannam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Kim, Jae Chul(jckim@hnu.kr)

|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longitudinally categorize the changing patterns of adolescents' general happiness and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each trajectory. Data from the 10th (2015; 471 students in grades 4-6), 13th (2018), and 16th (2021)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Children's Supplementary Survey were analyzed using Growth Mixture Modeling (GMM) and the 3-step approach.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adolescents' happiness generally decreased over time, individual trajectories were classified into five distinct latent classes: the 'High-starting rapid-decline' class (15.4%), 'High-school-period rapid-decline' class (14.2%), 'Mid-high-starting gradual-decline' class (32.8%), 'High-starting gradual-increase' class (25.7%), and 'High-school-period recovery' class (11.9%). Using 'High-starting gradual-increase' class—the most adaptive developmental trajectory—as the reference group, the study explored influencing factors and found that low self-esteem, suicidal ideation, and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in early childhood (elementary school period) were identified as key predictors for entering risk trajectories, whereas parental factors did not show a significant influence. These findings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the heterogeneous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happiness and suggest the need for early identification of at-risk groups and the development of prevention-oriented, customized intervention systems.

Keywords: Adolescents, Overall Happiness, Latent Class, Growth Mixture Modeling, Change Trajectory, Exploratory Influencing Factors